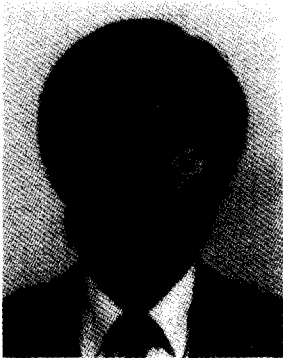


## 전기기술 25 Event 특집을 내면서

강 영 식

(한국전기연구소 전력기기 연구부장)



우리나라에서 전기기술이 도입된 것은 처음으로 경북 공에 전등이 점화된 1887년으로 올해가 110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실질적인 전기기술의 발전은 우리나라가 산업화 사회로 전환되기 시작한 시기부터라 하겠다. 1947년 대한전기학회가 창립된 이래 지난 50년간의 전력산업과 전기공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다하였으며 또한 국민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바꾸어 놓았다

전기기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의 역사와 같다. 해방후 남북분단, 북한으로부터의 송전중단으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었으며 6.25동란으로 인한 파괴로 수난과 재건의 어려운 기간을 경험하였다.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 동안 전력산업은 전력의 부족이 경제생활과 산업발전의 주요한 저해요인의 하나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전원개발을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함에 따라 극심한 전력난을 해소하고 세

계 제21번째의 원자력 발전국이 되었으며, 원자력발전의 설계, 제작, 시공기술의 자립으로 KEDO가 발주하는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주관하게 되었고 또한 765KV의 송전전압 격상사업도 우리기술로 추진중에 있다

전기공업 역시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대기업의 경제적인 투자와 해외 기술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전기기기가 개발 국산화되어 우리나라의 주요 기간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설계 및 제작기술의 확보로 765KV급까지의 초고압기기의 국내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OECD 가입으로 선진국으로 부상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정보화 시대 진입에 따라 국민생활의 전기 의존도가 심화되어 전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난 50년간 우리 학회 회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경제개발의 기쁨을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전기기술의 연구개발로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 된다.

대한전기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기기술 25 Event”라는 제하에 특집을 기획하여 지난 50년간의 전기기술 발전의 기록을 남기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특집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한전기학회 관계자 여러분과 옥고를 보내주신 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